

유엔 여성발전분과 '정책결정자로서의 여성' 보고서

여 90. 11. 2

이 사회의 여성은 많은 곳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그것이 가장 드러진 곳 중의 하나는 사회적력과 관계된 곳 즉, 정치와 '정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영역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수가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려운 제이다. 그러나 최근 유엔 산하 여성 발전 분과에서 '정책결정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주제 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에 하면 그 최고치가 전 세계적으로 20 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을 이다. 그것은 동구 유럽의 사회의 국가에서 의회에 진출한 성들의 수로서 전체 의원의 36퍼센트를 차지한다.

전 세계를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남미와 카리브 안 지역, 동 유럽의 사회주의 가와 서구 유럽의 5개 지역으 나누어 조사한 이 연구에 르면, 여성의 배제는 행정 영역 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정부 에서 정책 결정자로서의 여성 비율은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 역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 조차 8.9퍼센트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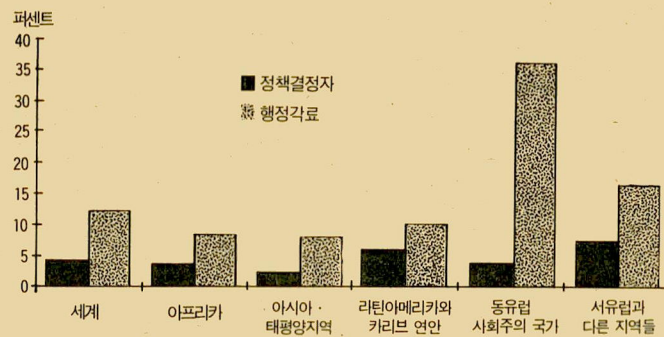
타 지역은 대개 2~4 퍼센트 도인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퍼센트에 불과하다. 전 세계의 155개국 중 99나라가 장관급에 한명의 여성도 없다(1987~1

988). 그리고 의회에는 13명의 여성 의원(4.3%)이 있는 반면 정부에는 단 한명의 여성 각료도 없고(1989년), 알제리아에도 여성 각료는 한 사람도 없다. 프랑스에는 6명이 여성 각료가 있으나 국회에는 단지 5%만의 여성 의원이 있을 뿐이다(1989). 반면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11명의 여성이 정부내 에서 각료급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1989).

이를 정부 각 행정 부서 별로 살펴 보면 그나마 여성이 정책 결정자로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서는 사회부이다. 정치나 경제 부서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만은 전 부서에 비교적 고른 여성분포를 나타낸 다. 이같이 사회부에 여성이 집중 되어 있는 현상은 사회부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여성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부서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있을 곳을 사회부로 한정짓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단지 정부내의 여성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정책 결정자로서의 지위에 오르는 방법은 주로 의회나 정 당, 노조 및 사회단체를 통한 정치적 입문의 길이다. 그러나 여성은 이런 정치단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여성이 비교적 많다고 볼 수 있는 정당이나 노조, 사회단체들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는 여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여성이 의원 후보가 되는 일조차 희귀하고 이런 상황 에서 여성정책결정자는 더욱 드물게 되는 것이다. 도표는 각 지역별 여성의원들의 수와 정책 결정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



다. 비록 여성의원의 수가 평균 9.7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나 정책 결정자보다는 항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의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은 대통령이 여성 임에도 불구하고 상원에는 단지 두명의 여성이 있을 뿐이고 하원 에는 18명의 여성 의원(9.05%) 이 있다. 그러나 각료의 33%가 여성인 스웨덴은 국회도 38%가 여성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자니아는 25명의 여성의원 (10.2%)이 있는데 여성각료는 5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40명(5.3%)의 여성국회 의원이 있다.

일반적으로 위의 방법 외에도 정부 부서내에서 진급을 통해서 정책 결정자의 지위에 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이 길 역시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힘들다. 그 이유는 역시 여성에 관한 전통적인 차별 때문인데, 특히 채용을 꺼린다거나 특정 직종에 한정시키는 것, 여러 가지 의 훈련 기회의 제약 등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유엔의 경우만 해도 예외는 아니라고 이 보고서는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유엔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행정 기관이다. '여성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전략 연구소'는 유엔이 야말로 각국 정부를 위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엔에서의 여성 참여는 일반 국가와 하등의 차이도 없는 실정 이다. 하위직에서는 여성의 비율 이 거의 50%에 가깝지만 고위 관리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2~5%에 그친 다. 이 원인으로는 하위직은 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되므로 여성은 남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지만, 고위 관리직으로 갈수록 외부의 추천에 의한 채용이 많아 지는데 이때 추천자인 회원국에 서 아직 한번도 여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밖 에 내부 진급에 의한 경우도 여성은 주로 일반 관리직이나 도서관, 언어 관계의 자리에 한정 된다. 유엔 회원국의 외교 사절 중 약 20%가 여성이다. 그러나 60개 국가는 외교 사절 중에 단 한명의 여성도 없으며 대사급 에는 전체적으로 단지 8명의 여성만이 있을 뿐이다.(1989)

근래에 여성의 정치 참여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그 원인을 여성 차별의 전통적 태도와 남성중심적인 사회체제로 들고 있다. 선진국은 여성 정치가에 대한 신뢰와 정치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그 나라의 산업 발달 정도와 여성 정책결정자의 수는 직접적 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문학과 교육에서의 여성 비율, 공업과 농업 노동력에 서의 성비율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여성 조직이 발달되어 있고 정치학, 법학, 경영학 등에 관한 학문 및 훈련 과정이 여성에게도 열려 있으 며, 사회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여성 대중의 정치 참여가 높고 여성 정책 결정자도 다른 국가보다 많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전히 매우 예외적인 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매우 제한 되어 있다. 몇 나라에서는 이의 수정을 위해서 여러가지의 개혁 안이 실행되고 있는데, 적절한 방법이 실행되는 경우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고위급 공무원의 20.3%가 여성인데 그중 33.3%가 장관급이다.

정치의 모든 영역이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전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까지 남성이 독점해 온 정치, 경제 영역에 여성의 활발한 진출 이 필요하다. 여성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가로막는 기존 의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똑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 외에도 여러 가지의 적극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스스로의 단결된 노력일 것이다

(조정아 객원기자)